

## 용현회 정기모임, 동문 기관·단체장 50여명 참석해 성료

정인화 광양시장 초청...순천·여수·광양 동문 회원들 함께 해

본회 용현회(회장 조성희) 정기모임이 정인화 광양시장 초청으로 6월 30일 광양읍 삼대숯불구이에서 열렸다. 용현회는 본회의 동문 기관, 단체장 모임이다.

이번 용현회 정기모임에는 본회 류혜경 총동창회장,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과 이근배 모교 총장과 조성희 용현회장, 이개호 국회의원과 허정, 정인채, 박승현 본회 역대회장과 정병석 전 모교 총장도 참석했다.

또 정기명 여수시장과 주순선 전남도 동부분부장, 이광일 도의회 부의장과 주종섭 도의



조성희 용현회장



류혜경 총동창회장

원, 송기주 광양경찰서장, 정해동 순천세무서장, 조충남 전남CBS대표, 이두식 농협광양지부장 등 동부권 동문 기관장들과 임종대 광양지부 회장, 김종춘 순천지부 회장, 정권희 여수지부 회장 등 동부권 동창회장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용현회 조성희 회장은 “정인화 광양시장께서 초청한 용현회 모임에 참석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임은 동부권(순천, 여수, 광양)에서 기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셨고, 총동창회

지부 회장들도 함께해서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용현회 모임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문들을 격려하고 동문들의 긍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

한편 용현회는 총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1999년 김양균 전 헌법재판관의 제안으로 창립되어 현재 200여 명의 동문 기관·단체장들이 활동하고 있다. 다음 정기 모임은 9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 이금규(법학·89) 변호사, 자랑스러운 전남대인 특별상

‘윤석열 탄핵 심판’ 국회 소추대리인단으로 활약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특검보에 임명

전남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금규(법학·89, 변호사) 동문을 ‘자랑스러운 전남대인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전남대 총동창회에 따르면 6월 18일 전남대는 창학 113주년·개교 73주년을 기념해 이변호사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6월 2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예정된 용봉리더스포럼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금규 변호사는 1999년 전남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수원지검 평택지청·울산지검·광주지검·서울서부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2013년 ‘범무법인 도시’를 설립,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법률자문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 재능기부를 해왔으며, 전남대학교 서울동창회 사무총장의 소임을 맡아 동창회 발전에도 공헌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소추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와 주권 회복에 기여했고 민주화의 성지 광주시민과 전남대인으로서의 명예를 드높인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 국가유산청장에 허민(지질·79) 본회 부회장 임명



국가유산청장에 허민(지질·79,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본회 부회장이 임명됐다.

허민 신임 국가유산청장은 1961년생으로 전라남도 순천출신이다. 순천고, 전남대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질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질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남대 부총장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한국 위원장,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허민 신임 청장은 고생물학자로 활동하며 ‘공룡박사’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다. 남해안 공통서식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주도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허 청장 임명에 대해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정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만큼 우리나라 국가유산을 지키고 세계인이 인정하는 K-컬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총동창골프회장배 골프대회 성황리에 개최



전남대총동창골프회의 모교 발전기금 전달



무안CC에서 열린 제6회 총동창골프회에 참석한 동문들 모습

## 모교 발전기금 3백만 원 전달

전남대학교총동창회 골프동호회 전남대총동창골프회(회장 문정현)가 6월 7일 무안CC에서 총동창골프회장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남대총동창

골프회 정회원 60명과 초청 외빈 12명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참여자들의 열띤 라운딩 이후에는 만찬 자리를 열어 동문들의 화합과 단합의 자리가 마련

됐다.

이날 만찬 자리에는 류혜경 총동창회장장과 이근배 모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푸짐한 선물 증정식도 열리면서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총동창골프회 문정현 회장은 “총동창회가 굳건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골프회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남대총동창골프회는 모교 발전을 기원하며 이근배 총장에게 발전 기금 3백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전남대총동창골프회는 동문들 상호간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해 2019년 3월에 창립되어 창립 6년 차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 9회 매월 첫째 토요일에 무안CC에서 개최한다.

문의: 회장 문정현(010-2007-0250)

경기이사 정경호(010-3614-8786)

총무이사 민기홍(010-5090-1800)

## 제10대 여성용봉회 정기총회 성료

본회 여성용봉회(회장 박명숙) 정기총회가 6월 27일 오후 6시 30분에 베네치아 지산 본점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본회 류혜경 총동창회장, 여성용봉회 박명숙 회장을 비롯한 동문 회원들이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박명숙 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며 여성용봉회 총회를 축하했다.

총회 행사에 앞서 황준수 SK증권 주임의 ‘ETF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총회에서 재

무보고에 이어 장진희, 김경애 감사의 감사보고가 진행됐다. 2025년 사업 예산안 및 사업 계획안을 보고·의결했다.

여성용봉회 박명숙 회장은 “모교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올해도 여성용봉회가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여성용봉회는 지난 2007년 여성 동문들이 결성했으며 지금까지 장학금 기부 등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여성용봉회 정기총회장 모습



정기총회 진행 모습

## 전남대총동창회, 김상욱 국회의원 명예동문 위촉

전남대총동창회(회장 류혜경)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을 전남대학교 명예동문으로 위촉하고 6월 20일 ‘용봉리더스포럼’에서 명예동문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상욱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달

려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고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의 당론에 반대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 투표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주권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광주정신 덕

분”이라며 “탄핵 정국 때 두 차례 죽을 각오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광주의 희생이 떠올랐다”고 발언하며 5·18 광주 정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는 점이 전남대학교가 추구하는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푸른용봉회 6월 정기 모임 성료



## 신입회원 허인, 최유미, 이흥규 동문

본회 푸른용봉회(회장 강창우) 정기 모임이 6월 16일 오후 7시 해담헌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모교 박형규 대외협력 부처장과 본회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 김영필 사무처장이 참석해 더욱 뜻깊었

다. 특히 신입회원 허인(환경공학·00), 최유미(경제·02), 이흥규(사회·14, 전 총학생회장) 동문이 참석해 동문 회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선·후배의 뜨거운 정을 나누

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강창우 회장은 “우리 푸른용봉회는 전남대 동문이면 누구든지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다”면서 “선·후배들과 교류하며 정을 나누는 동문 모임 푸른용봉회에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푸른용봉회는 젊다는 뜻의 ‘푸

른’과 전남대 상징인 ‘용봉’을 합성해 만든 말이다. 회사원, 기업인, 변호사, 의사, 기자, 화가,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군의 동문이 모였다.

주로 30~40대 젊은 동문이 친목을 다지고 있다. 2010년 창립됐으며, 2015년 3월 재창립된 이후 활발하게 모임을 열고 있다. 두 달마다 정기 모임을 갖는다.

#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7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활동 본격화

3차 회의 진행...내년 창립 70주년 앞두고 다양한 사업 예정



2026년 본회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구성된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7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위원장 오형석 이사장)가 6월 15일 거목한정식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준비위는 주요 사업 내용을 확정하면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창립7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오형석 이사장(탐솔라그룹 회장), 부위원장 김옥렬 부회장(다큐디자인 대표), 위원으로 주홍(샌드애니메이션), 김태관(콘텐츠팜 호미 대표), 권윤구(전남대 조경학과 교수), 곽민재(홉플로우 대표), 박지민(코끼리협동조합 대표), 고문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광주공고장학재단 이사장), 간사 정주영 사무처 부장이 활동하고 있다.

70주년 준비위원회는 ‘창립70주년 기념식’을 비롯해 민주길 걷기, 동문명감

제작, 발전기금 모금 등 동문 참여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전남지사 재임 기간 중 국립 전남대학교를 설립한 이을식 지사의 흉상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원과 포토존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발행한 ‘전남대학교총동창회 60년사’를 추가 보완하여 총동창회 70년사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동문 화합을 위한 행사로 고려인 추방되었던 중앙아시아 역사 탐방(재학생 고려인, 재학생, 동문 포함)도 기획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문의 날, 기획 전시회, 등반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70주년 준비위원회는 오는 7월 25일 4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기업!**  
**남경건설그룹이 인간 삶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남경건설 | 남경중공업 | 대박이연식 | 남경중공업 | 세영개발 | 정오개발 | 대오에너지  
주소 : 619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71(차경동) 대강빌딩 8F TEL 062) 457-2000 FAX 062) 354-5001



동문 인터뷰 - 이 개 호(경영·77) 국회의원

##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한 가슴 따뜻한 정치

성실한 의정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선 중진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회가 궁금합니다.

= 먼저 그동안 저 이개호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담양·함평·영광·장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늘 응원해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분들의 성원 덕분에 4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등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동문과 국민,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의 기대와 명령을 지켜왔던 소중한 대가이자 여러분들을 대신한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정치 소신은 ‘가슴 따뜻한 정치,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1980년 만 21세의 나이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고, 2014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온 이후 줄곧 소외된 지방과 농어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같은 중책을 수행하며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실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민의 뜻에 따라 더욱 열심히 일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되어 지역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호남을 대표하는 중진의원으로서 오롯이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믿을 수 있는 정치인 이개호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호남 정치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호남은 우리나라 개혁정치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 그분의 뒤를 이을 만한 리더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4선 중진의원으로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호남 정치를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김대중 정신의 핵심은 바로 ‘역사의식, 개혁성, 포용력과 민주적 자세, 그리고 정책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하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바람 속에서도 민주당을 지키며 광주·전남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던 그 마음가짐으로,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고 정권교체의 기반을 다지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온 노력의 성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지역 발전을 위해 기존에 유치된 국립기관 및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몇 가지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성군의 숙원사업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당초 475억 원 규모였던 사업을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1,00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였고,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재조사 중인 예산 3.3억 원을 반영시켜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함평에 양질의 교통안전체험센터 및 전문교육기관을 구축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임 시절, 쌀값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직불금을 받는 농민이 113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늘었고, 총예산도 1조 2,356억 원에서 2조 3,018억 원으로 증가하여 더 많은 농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년 연속 증액시켜 지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사태로 인해 촉발된 국가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지금 그 소중한 하나하나의 염원과 소망을 받들어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고 자부심을 갖을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농어촌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아시다시피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전라남도의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확실히 추진해온 지방인구감소 방지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이 스

스로 주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 지원을 보장하고 권한과 재정을 실질적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식량안보의 보루인 농어촌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아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을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예산확보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1호 법안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정부 출연이 1조에 불과하고 이도 2031년까지의 한시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현행제도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조원으로 확대하고 한시법 규정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서 보다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방소멸 위기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원님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동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자랑스러운 전남대학교 동문 여러분, 언제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은 저를 뽑아주신 지역민의 거울이자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항상 원칙과 정도를 지키며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변함없는 정치 소신인 ‘가슴 따뜻한 정치,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곁에 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 이로 인해 촉발된 위법, 위헌적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결국 이재명 정부를 통한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뤄내었습니다. 이러한 국민과 지역민의 뜻을 받들어 약속드린 지역발전 공약들을 성실하고 조속히 이행하여 우리 전라남도를 새로운 지방시대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남대 동문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6월 정기모임



이개호 국회의원 인사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회장 최희동) 6월 정기모임이 6월 19일 뜰안채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에서는 김재필(축

산·82) 광주축협조합장의 취임과 남택송 광주광역시 국장과 노배성 조달청 국장의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축하하는 동문



김재필 축하패 전달

들의 마음을 담아 축하패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이개호 국회의원(전 농수산부장관)과



남택송 축하패 전달

명예동문 최희갑 전 광주농고(현 자연과학고) 총동창회장이 자리를 함께해 더욱 뜻깊었다. 동문들은 축하와 감사의 마



노배성 축하패 전달

음을 나누고 이어진 만찬에서 근황을 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13년째 모교 사랑... 구승룡 총재 올해도 발전기금 기부

13년째 전남대에 발전기금을 기부해오고 있는 구승룡(의학·72, (사)국제키와니스 한국지구 종신명예총재) 동문이 6월 2일 1,0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며, 누적 기부액 4,886만 3250원을 달성했다.

6월 6일 전남대에 따르면 구승룡 총재는 지난 2012년, 300만원을 시작으로 전남대에 첫 기부를 한 이래 매년 학교의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동참해 왔다. 김남주홀 건립기금, 디지털 도서관 건립기금 등 전남대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금 조성에 꾸준히 힘을 보



태며, 진정성 있는 기부 문화를 실천해 왔다.

구승룡 총재는 1979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

다. 현재 전남대 총동창회 고문, 일곡지구 회장, 동창장학회 이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개교 72주년을 기념하는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으로도 선정된

그는 "학교의 발전이 곧 지역사회 미래로 이어진다고 믿는다"며 "의미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구승룡 총재는 의료 현장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도 앞장서 왔다. 2022년에는 하남공립지역아동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 대상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했으며, 국제 비영리 봉사단체인 '국제키와니스 한국지구' 36~39대 총재 및 종신명예총재로서 요오드결핍장애 예방, 저소득층 아동 지원 등 세

계적인 나눔 활동도 함께했다.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2009),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2010), 제29회 무등의림 봉사상(2019)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기부금 전달식에서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13년간 한결같은 애정으로 모교를 응원해온 구 총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러한 나눔이 전남대의 미래를 밝히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흥그룹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

# 서울동창회 제12회 용봉리더스포럼 성황리에 열려

열두 번째 용봉리더스포럼이 6월 20일 한국프레스 센터 프레스룸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본회 류혜경 총동창회장, 오형석 이사장,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 김영필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모교에서 이근배 총장, 김양현 교학부총장, 조진형 대외협력처장이 함께했다. 내빈으로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 김병주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리더스포럼 박양수 회장은 "최초 포럼을 기획했던 장원의, 최원락, 이능묵 동문과 초대 포

럼회장을 맡아 10회 포럼까지 헌신적으로 운영하신 김해곤 박사, 서울동창회를 반석 위에 올려주신 김성전, 이연익 고문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포럼에 참석하여 성원해 주신 총동창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1부 강사로 이근배 모교 총장이 강의했고 2부에서는 최원락 동문이 '이제 길이 보입니다' 책을 저술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포럼 시작 전에는 '자랑스런 전남대인' 수상자 김병주 국회의원과 이금규 변호사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이어진 행사에서 류혜경 총동창회장이 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에게 명예

동문 증서를 수여했다. 임성주 서울동창회장은 올해 취임한 이근배 총장과 류혜경 총동창회장에게 축하 꽃다발로 훈훈한 정을 전달하였다.

한편 용봉리더스포럼은 동문들의 지식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회원(100만원 회비 납부) 입회 증가와 '포럼 기금 1억원 모금'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글= 하영준(지역개발·97, 서울동창회 커뮤니케이션 국장)

## 동문 인터뷰 - 임지락(원예·83) 도의원

### 화순군 현안 해결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점사항과 도정 성과와 목표

전남도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도민의 삶 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제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과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화순 인접 시군과의 교통망 확충에 따른 성장인프라를 구축을 촉구하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도의회 본 회의에서 '광주-화순간 광역 철도 건설 및 경전선 활용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고 2024년 말 전면 개통한 국지도 55호선(남평~화순) 확포장공사를 위해 예산 확보, 현장 안전점검 수행을 포함한 행정 절차 지원, 그리고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전라남도, 화순군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를 포함한 광역경



제권의 한 축인 화순이 글로벌 백신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화순백신산업특구의 발전방향을 도정 질의를 포함하여 여러 경로로 꾸준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과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유치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바이오인력 양성을 포함하여 화순백신산업특구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국가 백신 바이오 공급기지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2022 대한민국 의정대상(광역의원부문)', 2023년 '제7회 무등 의정대상(혁신비전부문)', 2024년 '제7회 정명 의정대상(광역의회의원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화순군의회 제5대, 제6대 의원) 화순군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화순이 다음 세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 백신산업특구의 획기적인 도약과 첨단의료복합단지과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유치,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소멸 대응, 농촌 소멸을 대비하는 스마트 청년농업, 화순고인돌과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 개발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화순 발전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광주-화순 간 광역 교통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중차대한 현안으로 지자체간 협력과 경쟁속에 있는 화순군이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의원님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동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화순 발전을 위해 언제나 현장속에서 답을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정직하게, 더 따뜻하게 새롭고 변화된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소통, 공감, 나눔, 공유하는 화순을 위해 '늘 행동하는 사람 임지락!'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역정치인 배출과 양성에 전남대학교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들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지방자치시대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이 교류하고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더 큰 책임감으로 동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경 의과대 동창회 학술대회 및 총회

재경 의과대 동창회(회장 조길우) 학술대회 및 총회가 6월 28일 토요일 강남구 SG컨벤션에서 80여 명의 재경 의대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흥통

의 구별과 대처법-Cardiac CTA(경희대병원 김원 교수), 혁신적인 항암면역치료제 개발(화순전남대병원 이계중교수), 노인 환자 마취와 수혈(건국대병원 김태엽교수), Collagen

biostimulator의 실체와 임상적 적용(콜나움의원 이신 원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2부로 열린 총회에는 임성주 서울동창회장과 심재곤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 이근배 전남대 총장 취임 100일

## 인재양성과 지역상생의 첫 걸음



이근배 전남대 총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100일 동안 이 총장은 '인재양성과 지역상생'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대학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11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2월 26일 취임 이후 100일간 총학생회, 학장단, 실과장, 직능단체 등과 20회 이상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소통과 참여를 대학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취임 후 이 총장은 광주시장, 북구청장 등 지자체장과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10회 이상 면담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 체계 구축도 이 총장의 주요 행보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AI 및 데이터 기반 교육 강화에 집중하며,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이근배 총장의 의지는 다양한 국책사업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다.

그 출발점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선정이다.

전남대는 이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919억 원 규모의 국고를 확보하며, 지역사회와의 공동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역 문제를 대학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구조

가 본격화된 것이다.

연구 기반 강화도 눈에 띈다. 전남대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향후 9년간 총 201억 원을 지원받는다. 최근 '인문한국 3.0(HK+3.0)' 지원사업에 선정돼 6년간 46억 원을 확보했고,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에도 선정되어 3년간 87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는다.

이근배 총장은 "대학은 더 이상 내부만을 바라볼 수 없다. 지역과 함께 숨 쉬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인재를 키우는 전남대, 지역과 동행하는 전남대의 모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전남대, '2025 올해의 한 책'에 김애란 『이중 하나는 거짓말』 선정

전남대는 6월 25일 '한 책 선포식'에서 '2025년 올해의 한 책'으로 김애란 작가의 '이중 하나는 거짓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지역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지역 대학도서관 관계자와 독서클럽 회원, 지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의 한 책'과 함께 추천하는 동반도서는 최은영 작가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황보름 작가의 '어서 오세요, 휴남동서

점입니다', 문미순 작가의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이정모 작가의 '찬란한 멸종' 총 4권이 다.

## 전남대-해남군, 농·어업 위기 공동 대응 MOU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와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농·어업 분야의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 모델을 개발·구축하고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16일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이근배 총장을 비롯한 김양현 교학부총장, 조진형 대외협력처장, 박현재 사무국장, 이계한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서호영 수산해양대학장 등 주요 보직자와 해남군 명현관 시장, 김미숙 기획실장, 정경호 농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학·연구소 연계형 교육정주도시 해남 구축 ▲해외농업개발 등 국외 농업교류를 위한 인력양성 및 시스템 구축 ▲첨단 농어업 분야 기술개발, 연구실증 등 지·학 클러스터 구축 ▲농어업 특화 분야 교육 강화 및 취·창업 활성화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청년농 평생교육체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전남대, 미국 CSU와 글로벌 협력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가 미국 콜롬버스주립대학교(이하 CSU) 총장단을 초청해 양교 간 교육·연구·문화예술 분야의 협력 확대를 논의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대는 지난 6월 4일 CSU 총장단을 본교로 초청해 공식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남대 국제협력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CSU 측에서는 스튜어트 레이

필드(Stuart Rayfield) 총장을 비롯해 국제처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전남대에서는 이근배 총장을 비롯해 김양현 교학부총장, 주정민 대학원장, 강의혁 국제협력부처장, 최문홍 도서관장이 함께해 CSU 대표단과 환담을 나누고, 양교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남대와 CSU는 2013년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래 약 10년 넘게 활발한 인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 구례지부, 순천지부와 합동 모임 개최

본회 구례지부(회장 최춘태)와 순천지부(회장 김종춘)가 합동 모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구례지부는 6월 21일 동문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구례 토지면 송정골 '춘태다랑 농장'에서 순천지부 회원들과 상반기 합동 모임을 열었다. 특히 이번 모임은 '토크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해 동문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구례지부와 순천지부 전·현직 회장들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모임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뜨거운



한여름을 색다른 색채로 수놓은 특별한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례지부 김창승 전 회장은 '귀촌, 구례살이 10년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귀촌 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좋고 기쁜 일, 보람되는 일, 갈등과 조정의 시간 등을 통해 귀촌 생활의 실태를 알기 쉽게 토크형식으로

전달하며 동문들의 큰 공감을 받았다.

이어서 구례지부 최춘태 회장은 공식 생활에서 터득한 농정지식과 노하우 등을 활용한 '농업정책(농업인의 자격과 그로 인한 혜택)'과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예상되는 농업 통상정책의 난제와 대응'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크이벤트 이후에는 만찬 시간을 통해 동문 간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김경철(홍보운영위원)

동문은 자신이 직접 재배한 오이 8꾸러미(5kg/box)를 협찬했고 신승구(부회장) 동문은 본인이 직접 사육한 쇠고기 30여인분 등 구례 산지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협찬했다.

구례지부와 순천지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친선 모임 진행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호흡하며 동문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하고, 전남 동부지역에서 전남대 동문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지역민으로부터도 신뢰받는 전남대의 동문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환아 위해” 광주FC, 유니폼 경매수익 전남대병원에 기탁

K리그 프로축구단 광주FC가 팬 참여로 조성된 유니폼 경매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환자 치료비로 기부했다.

전남대병원은 광주FC가 특별유니폼 판매 수익금 700만 원을 어린이 환자 치료비에 보태달라며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광주FC는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 5월 5일 김천상무와의 홈경기에서 '폼폼푸린' 캐릭터가 담긴 특별 유니폼을 선보인 뒤 경매로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이번 기부금을 마련했다.



기부금 전액은 저소득 어린이 환자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정신 전남대병원장과 광주FC 노동일 대표이사(본회 상임고문), 이

정효 감독, 주장 이강현 선수가 참석했다. 광주FC구단은 “시민구단으로서 지역사회 성원에 보답하고자 기부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법대·법전문원 동창회장 초청 만찬회 개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동창회장(문방진 변호사) 초청 만찬회가 6월 11일 개최되었다.

이날 만찬에는 문방진 동창회장을 포함한 7명의 동창회

임원진과 법학전문대학원 정훈원장을 비롯한 22명의 교수가 참여하여 학교와 동창회의 긴밀한 유대를 기반으로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 서울동창회 인문학트레킹회 모임

서울동창회 인문학트레킹회(회장 강영남) 정기탐방이 6월 28일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정조의 효심 가득한 용건릉과 용주사에서 11명의 동문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용주사는 정조대왕이 부친 장헌세자의 능인 현릉원을 화산으로 옮기면서 갈양사 자리에 능침사찰(능사 원찰이라고도 부름)로 용주사를 세우고 부친의 명복을 빌었던 곳이다.

조선 왕릉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소나무와 문화재 건물이 잘 보존 관리되고 있다.

인문학트레킹회는 7월

27(일) 양평 수종사와 세미원을 탐방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 : 강영남 010-3265-3872

## 무등지부 모임 열려



본회 무등지부(회장 장영태) 모임이 6월 30일 두암동 '등촌'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장영태, 손희하, 김창현, 이호근, 양혜령, 정현철, 강경민 동문이 참여했다.

# 왕벚나무 그늘 아래 바람 소리...보성 천봉산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 2025년 7월 정기산행기

7월 5일 정기산행일(매월 첫 번째 토요일),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회장 김영필)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쏟아지는 폭염 경보를 확인하며 보성 천봉산으로 향했다.

천봉산(天鳳山)은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과 북내면의 경계에 위치한 해발 612m의 아담한 산으로, '대원사(大原寺)'와 '시오리길'로 유명하다. 시오리길은 왕벚나무가 있는 15리 길이를 뜻하는데,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

대원사 주차장에 도착한 회원들은 먼저 대원사를 관람한 다음, 출발 지점인 산양정으로 이동했다. 산양정에서 출발하여 천봉산 정상을 간 후, 백민미술관 방향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선정했다.

회원들은 차례로 산양정 뒤로 난 숲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시작부터 경사가 만만치 않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땀이 비 오듯 흐른다. 임도를 만나 잠시 한숨을 돌린 후 다시 또 숲길이다.



다행히도 오르막만 있는 건 아니다. 생각보다 완만한 길도 있고 때론 잠시나마 내리막도 있다. 어느덧 정상에 서니 사방 팔방이 산이다. 북으로는 까치봉, 서로는 말봉산과 그 너머에 무등산과 모후산, 동으로는 주

암호 뒤편으로 조계산과 더 멀리 광양 백운산이 보인다. 그야말로 장관이다.

정상에서 조금 내려가 시원한 장소를 찾아 점심을 먹으며 꿀맛 같은 휴식을 취했다. 해발 600m 정도니 확실히 쾌적하

다. 긴 하산끝에 도착지인 백민미술관 주차장에 도착한 회원들은 집행부가 준비해 간 '얼음곡주'로 조금이나마 피로를 날리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8월 2일(토요일)에는 시원한 계곡을 주제로 백운산 백운암 계곡을 가고, 9월 6일(토요일)에는 아름다운 길을 주제로 부여 사비길을 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양궁용 수석부회장 겸 수석총무(010-2533-5243)에게 하면 된다.

/글=강경민

(전남대총동창산악회 산악대장)



## “경주사랑의 광주사랑” ④3 우뚝 서라 하늘을 만나라 가르치는 무등산

글·그림=김길남(지리교육·77) 동문

시인 이성부는 광주를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광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성부 시인도 무등산을 마음깊이 사랑했다. 이성부의 시집 '백재행'에 실려있는 '무등산'을 소개한다.

내가 어렸을 때 /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 / '저 산은 하늘산이여.' / '하늘님이 계시는 집이여.' // 산에 올라서, / 하늘님을 만나서, / 물어볼 것이 참 많았지만 / 부탁할 것도 참 많았지만 // 나는 훨씬 뒤에 야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야 / 이 산 꼭대기에 오를 수가 있었지. / 입석대 끝에서 날고 싶었지. // 서울에서 공부할 적엔 /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 새벽과 함께 맨 먼저 반기는 산. / 입곡쯤에서 뛰어드는 산. / 면발치로, / 내 가슴 뛰게 하던 산. // 광주, 담양, 화순, 나주를 굽어보며 / 그 큰 두 팔로 /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껴안고 / 불비비는 산. / 넓은 가슴으로 / 맞아들이는 산. // 그리고 / 마침내 가르쳤지. / 산이 무엇을 말하고 / 산에 오르면 / 어떻게 사람도 크게 서는지를 / 이 산은 가르쳤지. // 나는 어른이 된 뒤에야 / 어렸을 적 어머니 말씀, / 그 큰 뜻을 알 수 있었지. / '저 산은 하늘산이여.' / '하늘님이 계시는 집이여.'(이성부의 시 '무등산'전문)

무등산은 말이 없이 제 자리를 지키는 산이다. 넓은 가슴을 열어 모든 이를 품어준다. 그리고 큰 사람이 되라고 우뚝 서라고 하늘을 만나라고 가르친다. 5·18민주 항쟁을 생각할 때 무등산을 떠올리는 사람이 하나 뿐일까?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무등산을 이렇게 노래했다. 거인위사(巨人偉士) 불언불소(不言不笑) 공화급물(功化及物) 큰 인물이나 위대한 선비 같아서 / 비록 말이 없고 웃는 일도 없으나 / 산의 공덕과 교화가 만물에 미친다.

필자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광주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기전에 '무등산'시를 화면에 띄워놓고 참가자들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는 장면을.

국토교통부지정 건축 안전진단전문기관 / 토목 안전점검전문기관

### 지오구조안전진단(주)

충실한 기본을 바탕으로 성실한 책임 점검을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서	
안전보건대장	
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공사 중 안전점검	
건축물 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사전안전진단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안전컨설팅 및 안전교육	

대표이사 **고 병 운**

-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2020년
- 산업대학원 토목공학과 2025년
- 포항공과대학교 산업부회장
- 새마을운동중앙회 건설안전자문단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12, 737호(신안동, 제일오피스텔)  
T. 062-514-0480 E. ko-assal@hanmail.net M. 010-9612-7605

NEW-PLACE SINCE 2000

(주)새터이엔지 | 대표이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 **나경주(산업대학원 6기)**

전남 나주시 남평읍 강변1길65-13, 102호  
Tel : 061-333-7301 Fax : 062-515-7303  
E-mail : k998877k@nate.com

- \_ 건설사업관리
- \_ 기계설비 설계·감리
- \_ 전기통신 설계·감리
- \_ 풍력, 태양광 설계·감리
- \_ 소방설비 설계(일반)
- \_ 기계설비 공사업
- \_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 \_ 기계설비 유지관리업



# 세 번째 까미노를 마치며

16명 팀원들과 함께한 33일, 산티아고에 입성하면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2025년 6월 22일! 2년 전 오늘은 아내와 함께 생장에서 출발했던 날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기분이 묘하다. 기쁜 마음으로 산티아고로 향한다.

처음 16명을 이끌고 인솔자로 나설 때 다소 걱정했던 건 사실이다. 43일의 긴 여정, 생전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들, 잘 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나선 새로운 길이었다. 나와 인연을 맺은 우리 일행이 나와의 인연이 후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여정의 핵심이다.

많은 인원이 함께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 나와 뜻이 맞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남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20대에서 60대까지 나이도 다양하고, 주부와 직장인 등 직업도 다양하다.

처음부터 내려놓고 시작하기로 했다.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하게 여긴다.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을 힘



들게 해도 그러려니 넘긴다. 전체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컨트롤하며 조정해야 한다. 30년 이상 공직에 있으면서 터득한 나만의 노하우가 때로는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세 번째 여정에서 가장 보람된 것은 모든 일행이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완주한 거라 할 수 있겠다. 모두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큰 힘이었다. 장기 레이스에서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일행은 완주 의지가 무척 강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느낄 수 있었다. 알리지로 고생하고, 몸살감기로 고생하면서도 절대 점핑하지 않겠다고 우긴다. 저 정도면 쉬는 게 좋을텐데 해도 약을 먹으면서 기어코 걷는다.

33일 걷는 내내 날씨가 환상적이었다. 비는 첫날 피레네산맥 넘을 때 한 번 있었다. 2시 이전에 들어온 대부분은 비를 맞지 않았고, 늦게 들어온 몇 명만 비를 맞은 셈이다. 메세타 평원을 걸을 때 가장 어려운 건 따가운 햇살이다. 우리가 이 평원을 걷는 내내 날씨가 환상적

이다.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짙게 흐르는 날이 많았다. 이 무슨 복인가? 6월이 되면 따가운 햇볕은 각오해야 한다. 태양의 나라, 스페인! 이 수식어가 그냥 붙은 게 아니다. 스페인 햇볕은 살인적이라고 얘기한다. 6월이 그 시작이다. 비도 없고, 그렇다고 햇빛이 짙게 내리쬐지도 않는다. 세상살이 북북북이라던가? 참 북북은 우리 팀원들이다. 이것도 님의 뜻이려니...감사합니다!

산티아고에 들어오면 목시아와 피스테라는 버스로 다녀오

는 사람이 많다. 두 곳 모두 순례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2시경 산티아고로 들어와 점심을 한 뒤 자유시간이다. 혼자 대성당으로 향한다. 순례길 마지막 여정인 야고보상과의 포옹, 대성당 미사는 하고 가야 한다. 야고보상 포옹은 입구가 바뀌었다. 미사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 야고보상과의 만남이 끝나고 미사를 기다린다. 웅장한 대성당 안에서 두어 시간 기다리며 글을 마무리한다.

미사 마치고 광장에서 대성당 첨탑을 보며 이번 여정의 마무리 인사를 한다. 산티아고여, 감사합니다! 우리 팀원들 모두 무사히 완주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올 때까지 안녕! 다음이 언제일지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박응렬 (농학·77) 부회장  
작가, 산티아고 스쿨 교장

## 재경 정치외교 동문회 정기 모임 개최



재경 정치외교 동문회(회장 김형국) 2025년 상반기 모임이 6월 9일(월) 서울 광화문 오양식관에서 10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인 재경 정치외교 동문들은 향후 400여명의 재경 정치인들이 함께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11월 1일 예정된 총동창회 연합산행에 함께 참여하는 전통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 서울동창회 골프회 정기 월례회



서울동창회 골프회(회장 손철규)가 6월 26일 가평 베뉴지 CC에서 정기 월례회를 4팀으로 진행 했다.

주 4주 차 목요일에 진행되며 40~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동문들이 함께하고 있다.

/참가 신청: 손철규(010-5025-9999)

15년간 이어온 골프회는 매

# 김재봉 상임부회장 기부로 화순전남대병원 '김재봉홀' 개소식

화순전남대병원이 최근 미래의료혁신센터 1층에 '김재봉홀(JBK Hall)'을 새롭게 조성하고 이를 기념하는 개소식을 가졌다.

김재봉홀은 김재봉(의학·, 신세계안과 대표원장) 상임부회장이 1억 5천만 원을 기부해 마련된 중역회의실로, 병원의 주요 정책 결정과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민정준 병원장은 “김재봉 원장의 기부는 단순한 물질 지원을 넘어 공공의료의 가치와 책임에 대한 깊은 연대이자 의료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며 “김재봉홀은 그 뜻을 담아 병원의 중



“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김재봉 원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병원이 더 나은 환경에서 소통하고

말했다. 김재봉 원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병원이 더 나은 환경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며 “이 공간이 의료 혁신과 환자 중심 병원의 방향을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재봉홀은 중역회의실이라는 정체성에 맞춰 설계 단계부터 고급스러움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회의실 전면에는 173인치 규모의 2mm 피치 LED 디스플레이가 설치됐으며, 수직 빔 투사 방식의 스피커를 통해 음향 전달력을 높이고 공간의 잔향을 최소화했다.

## 김양현(교학부총장) 동문, 인문대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김양현(철학·80, 전남대학교 교학부총장) 동문이 인문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로 김 부총장의 누적 기부액은 총 3,500만 원에 이른다.

김양현 동문은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1987)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1989)를, 이후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박사 학위(1997)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후학을 길러왔고, 2025년 2월부터는 교학부총장으로서 대학 행정을 총괄하며 전남대학교가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힘쓰고 있다.

철학과 교수이자 인문대 소속 교수로서, 그는 오래전부터 노후화된 인문대



건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쾌적한 학습 공간 조성에도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 전달된 발전기금은 인문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에 소중히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부에는 최근 장녀의 결혼을 맞아 학교 구성원들이 보내준 따뜻한 축하에 대한 감사의 뜻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현 동문은 부총장은 “인문대 건물이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화돼 있고,

신축 중인 인문대 건물도 있다 보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했다”며 “이 공간에서 인문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며 창의성과 인문적 소양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광주은행, 전남대학교서 대학생 응원 행사

광주·여수캠퍼스서 삼계탕·커피 등 나눠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에서 지역 대학생들을 응원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은행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전남대 재학생들에게 삼계탕을 무료로 제공하



고, 푸드트럭을 통해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나누며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대학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 세대와 소통을 넓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 양지병원**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미 'Newsweek' 한국 최고 병원 6회 선정

<p><b>비만당뇨수술센터</b></p> <p>고도비만 / 대사수술 / 상부위장관 / 복강경수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 최다 단일 고도비만 수술건수</li> <li>2 국내 최초 美SRC 마스터 서전 선정</li> <li>3 고도비만 분야 1인자, 김용진 센터장</li> </ul>	<p><b>다빈치 로봇수술</b></p> <p>비만대사 / 위암, 대장암, 간암 / 탈장 / 담낭절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밀·정확한 최소침습수술</li> <li>2 출혈·흉터·통증 최소화</li> <li>3 합병증 감소,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li> </ul>
--	--

30개 임상과 | 10개 특성화센터 | 120여 명 전문의 | 소화기병원 | 국제병원

2호선 **신림** 역 1번 출구 100M 앞 ☎1877-8875

# 취임·승진·수상·출판 등 다양한 동문들의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계재를 희망하는 동문은 관련자료(사진포함)를 보내주세요. <nud@hanmail.net, 총동창회 사무처 062-528-9946>

■ 강위원(국문·94) 부회장

### 제14대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취임



강위원(국문·94, 더불어민주당 전국 혁신회의 상임고문) 동문이 전라남도 제14대 경제부지사로 임명하며 도정 핵심 현안 해결과 전남 경제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강위원 동문은 영광 묘량 출신으로 광주 고등학교 협의회 의장, 전남대 총학생회장,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5기 의장, 한총련 수배해제 사회인대책위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며 일찍부터 시민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왔다. 정치권과 행정, 현장을 두루 경험한 강부지사는 폭넓은 인맥과 기획·추진력으로 전남의 경제부지사 책임자로 평가된다. 그는 2023년 더불어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창립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주도하며 상임대표를 맡았고, 현재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 김정완(행정·86) 부회장

### 제22대 광양 부시장 취임



김정완(행정·86) 동문이 제22대 광양시 부시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7월 1일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과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광양시 부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정완 동문은 부시장은 장흥 출신으로 행정고시 49회에 합격한 후 전남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 일자리 정책과장, 장흥부군수, COP28(제28차유엔기후변화협약) 유치추진단장, 전남도 인재개발원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 조기선(행정·86) 부회장

### 광주CBS 신임 대표 취임



조기선(행정·86, 전남CBS 대표) 동문이 광주CBS 신임 대표에 취임했다. 조기선 동문은 전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미주리 주립대 저널리즘 스쿨에서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연수했다. 조기선 동문은 1993년 CBS 공채 16기로 입사해 광주CBS 기자를 거쳐 CBS 노동조합 사무국장, 전남CBS 보도제작국장, CBS 기획조정실 홍보부장, 광주CBS 보도제작국장, 전남CBS 대표 등을 역임했다. 조기선 동문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한국방송대상, 한국방송기자클럽 BIC 보도상, 광주전남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 김영일(농생물·87) 부회장

### 제48대 광주 동부소방서장 취임



광주 동부소방서는 김영일(농생물·87) 동문이 제48대 동부소방서장이 7월 1일자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영일 동문은 동부소방서에서 간단한 취임식을 가진 뒤 관내 대인시장 인근을 방문, 시설 현장점검을 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한편 1994년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김 서장은 1997년 간부후보생 9기로 소방에 입문해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학교, 광주 서부·남부·광산소방서 등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 2023년에는 제23대 광산소방서장, 지난해에는 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과장을 역임했다.

■ 조충남(사회·89) 부회장

### 전남CBS 대표 취임



조충남(사회·89) 동문이 전남CBS 대표로 취임했다. 조충남 동문은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CBS 광주방송 PD로 입사해 1996년 CBS에 입사한 조충남 신임 PD협회장은 시사교양제작부 소속으로 2009년 CBS 본사로 옮겨 '뉴스야 놀자', 'CBS 초대석', '김미화의 여려분' 등 인기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최근에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CP와 CBS라디오 편성부장을 역임했다. 방송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경력을 쌓아온 조충남 동문은 전남지역 CBS 방송국을 이끌며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보도역량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 송시훈(융합식품바이오공학과 박사과정) 동문

### IFBB 아시아선수권 3관왕 쾌거



송시훈(전남대학교 융합식품바이오공학과 식품공학전공 박사과정, 지도교수 조정용) 씨가 '2025 국제피트니스보디빌딩연맹(IFBB)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아랍에미리트 아지만(Ajman)에서 개최됐으며, 아시아 23개국의 대표 선수들이 참가해 높은 수준의 기량을 겨뤘다. 송시훈 동문은 ▲남자부 클래식 보디빌딩 +175cm 부문 ▲남자부 게임즈 클래식 보디빌딩 +175cm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각 체급 우승자 간 최종 비교심사에서 종합우승(오버올)을 거머쥐며 3관왕에 올랐다.

**광진구**  
소통하여 발전하는 행복광진  
광진구청장 김경호(경영학과 79)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0  
T : 02-450-1303, 1333 F : 02-2201-1987  
E-mail : kimkho@gwangjin.go.kr

www.나으람.com  
**나으람의원**  
CANCER CLINIC  
대표원장 문창식 (82 의학과)  
(현) 임성통합의학임학회 명예회장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BOUT NAEURAM  
암종별 맞춤형 암치료  
T : 02-6956-1133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12 (문촌동 439-5)

**농업회사법인 전남토탈푸드**  
대표이사 유미순  
(경관 43기, 경희 27기\_초대회장)  
취급품목  
깐양파, 양채류 전문 생산 가공  
전라남도 나주시 청동길 34  
Tel : 061-335-9694 Fax : 061-335-9695  
E-mail : jnf9694@naver.com

■ 조재호(미생물·90) 동문

제21회 서봉의학상 수상



조재호(미생물·90, 전남대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동문이 제 21회 서봉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봉의학상은 교수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의과학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2년 12월에 국영종 명예교수의 후원으로 제정된 상으로, 최근 5년간 연구 업적이 뛰어난 교수를 선정해 시상한다.

■ 손치근(행정·74) 동문

‘형제국가 카자흐스탄’ 발간



손치근(행정·74) 동문이 외교관 신분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직접 발로 뛰며 얻은 많은 경험과 소중한 네트워크, 현지에서 습득한 생생한 정보를 종합해 한 권으로 정리한 ‘형제국가 카자흐스탄’을 발간했다. 카자흐스탄에 관한 단순 정보의 전달이 아닌 현장감 넘치는 경험담과 깊이 있는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흥미를 유발하고 숨어있는 재미를 찾아내어 우리에게 선사한다.

■ 이영철(화공·76) 동문

‘티벳, 티베트’ 발간



세상의 수많은 길을 걸으며 만난 사람과 자연과 문화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영철(화공·76) 동문이 ‘티벳, 티베트’를 발간했다. 이 책은 ‘티벳, 티베트’라는 미묘한 어감의 차이에서 출발해, 역사·문화적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온 티베트 장족의 삶을 다채롭게 담은 인문여행서이다.

■ 김용권(국제학 박사·15졸) 부회장

‘현대문예’ 신인상 수상



김용권(국제학 박사·15졸, 사회복지법인 진산 이사장) 부회장이 국내 우수 문예지인 ‘현대문예’ 신인상에 당선돼 문단에 공식 등단했다. 이번 수상은 김용권 동문의 문학적 성찰과 삶의 깊이가 담긴 작품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문학과 사회복지를 아우르는 그의 독창적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문대근(행정·75) 동문

‘미중 패권전쟁’ 이해 시리즈 발간



30년 동안 통일부 근무 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문대근(행정·75) 동문이 10년 준비 끝에 지난 6월 대작을 출간했다. ‘미중 패권전쟁’ 이해 시리즈 1~3권(생각나눔 간)은 저자의 40년 통일 학습과 30년 중국학습, 10년 미중 관계 학습의 완결판이다. 제1권 ‘역사로 읽는 미중 패권전쟁’은 개론이고, 제2권 ‘미중 패권전쟁의 현황과 전망’과 제3권 ‘미중 패권전쟁과 한국의 선택’은 각론이다.

■ 김한호(화공·77) 동문

‘(주)샐러리맨: 당신의 인생을 경영하라’ 출간



김한호(화공·77) 동문이 ‘(주)샐러리맨: 당신의 인생을 경영하라’를 출간했다. 저자는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대기업에서 사업관리자로 활약하며 오랜 시간 산업과 기술의 현장을 살아냈다. AI와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글쓰기의 방식이자,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의 장이 되었다.

총동창회 주요 행사 일정

- 07월 25일(금) 제4차 동창회70주년 준비위원회 회의
- 08월 26일(화) 집행위원회
- 09월 27일(토) 광주지역 4개대학 골프대회
- 10월 18일(토) 총동창회장배골프대회(무안CC)
- 11월 01일(토) 용봉인천선등산대회(충청)

류혜경 총동창회장 주요 동정



- 6월 16일 푸른용봉회 모임
- 6월 19일 농생대동창회 모임
- 6월 20일 제12회 용봉리더스포럼  
구례지부 6월 모임(순천지부 합동)
- 6월 27일 여성용봉회 정기총회
- 6월 30일 용현회 기관방문행사(광양시)
- 7월 07일 ‘지역 대학을 사랑하자’ 캠페인 발대식

全南大學校同窓會報



- 발행인 : 류 혜 경
- 편집인 : 김 영 필
- 발행처 : (재)전남대학교동창장학회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중흥동)
- 광고문의 : 062) 528-9950  
062) 528-9946
- 홈페이지 : <http://home.jnu.ac.kr>
- E-mail : [cnud@hanmail.net](mailto:cnud@hanmail.net)

**NHNETWORKS**  
www.nhnet.co.kr

미래 정보통신 글로벌 강소기업  
**엔에이네트웍스가 만들어 갑니다.**

스마트 제조&솔루션 개발 | 스마트 도시-안전&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국방&스마트 영상보안 | 혁신기술 연구·개발

대표 이근신(경희 22기)

본 사 |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312호  
T. 063-462-2245 F. 063-462-2246  
광주공장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30번길 54  
T. 062-719-1080 F. 062-719-1085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1304호  
경기지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251, 202호

**변호사 최정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 정 재(법학과 99卒)**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78번길 5, 3층  
Tel : 062-236-0025, 062-236-0026  
Fax : 062-236-0027  
E-mail : [chji0519@hanmail.net](mailto:chji0519@hanmail.net)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환경과 사람을 잇는 기업!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농업용자 · 태양광 · 발전사업 전문업체**

**(주)이와솔라에너지 | (주)신일솔라**  
대표이사 임덕빈(경관 40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시장길 31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동1길 1, 2층 4호  
Tel : 061-374-2903 Fax : 061-374-3942  
Mbile : 010-3601-2903  
E-mail : [ehwa2903@hanmail.net](mailto:ehwa2903@hanmail.net)

# 용봉인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회원님들의 정성 어린 동창회비는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형편의 학생 지원, 모교 발전, 동창회 발전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동문 화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류혜경 배상

### ▷ 임원회비 ◁

회 장 : 3,000만원 이상	고 문 : 30만원 이상	상임부회장 : 300~500만원 이상	감 사 : 200만원 이상	상 임 이 사 : 30만원 이상
이 사 장 : 1,500만원 이상	자문위원 : 30만원 이상	부 이사장 : 200만원 이상	부 회 장 : 50만원 이상	이 사 : 2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3-127-004515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 일반회원회비 ◁

일반회비 : 3만원 이상	평생회비 : 5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2-107-308738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	---

※ 입금 시 이름, 학과, 입학 연도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명단이 누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 Tel. 062-528-9946 / Fax. 062-521-9945 / E-mail : cnud@hanmail.net

## 동창회비 납입 동문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2025년 1~5월 분

#### 임원회비 (1월 1일~5월 31일)

##### 회 장

▲류혜경(의학·76) 3,000만원

##### 상임고문

- ▲이기홍(법학·53) 30만원
- ▲최상준(건축공학석사·58) 30만원
- ▲허 정(의학·70) 50만원
- ▲정인채(토목공학·65) 30만원

##### 고 문

- ▲구승룡(의학·72) 100만원
- ▲김세자(간호·71) 30만원
- ▲라석찬(의학·57) 50만원
- ▲배지수(요업공학·68) 50만원
- ▲설희석(화학공학·57) 30만원
- ▲이연익(수학·63) 30만원
- ▲임년식(토목공학·58) 30만원
- ▲임청택(경영·61) 30만원
- ▲주경석(법학·58) 30만원

##### 자문위원

- ▲강신영(화학공학·71) 30만원
- ▲공병철(경관·26기) 10만원
- ▲공후식(경영석사·96) 30만원
- ▲김만웅(최고경영자·5기) 30만원
- ▲김성대(원예·73) 30만원
- ▲김영진(의학·73) 30만원
- ▲김재화(경관·98) 30만원
- ▲김종근(농업경제·71) 30만원
- ▲나용수(산관·1기) 20만원
- ▲문영수(경관·37기) 30만원
- ▲민형배(사회·79) 30만원
- ▲박동만(교육대학원·96) 30만원
- ▲신윤숙(가정교육·72) 30만원
- ▲오광인(입학·65) 30만원
- ▲오재규(화학공학·72) 50만원
- ▲윤현두(자원공학·70) 30만원
- ▲정기명(법학·81) 30만원
- ▲최정원(농업경제·70) 30만원
- ▲최철수(전기·68) 20만원

##### 수석상임부회장

▲최희동(원예·74) 200만원

##### 상임부회장

- ▲서영숙(가정관리·85) 300만원
- ▲고병운(건축공학석사·17) 300만원
- ▲김성민(무역·87) 300만원
- ▲김종선(의학·92) 300만원
- ▲오경미(상업교육·82) 300만원
- ▲이지현(경제·08) 200만원
- ▲임미선(국사교육·89) 300만원
- ▲정민호(경제·85) 300만원
- ▲정혁준(행정·93) 300만원

##### 부이사장

▲박인철(행정·90) 100만원

##### 장학재단 감사

▲김정민(회계·90) 50만원

##### 단과대회장

- ▲박숙령(간호·74) 50만원
- ▲손희하(국어국문·75) 50만원
- ▲서해현(의학·75) 50만원

##### 부회장

- ▲강훈열(사법·86) 50만원
- ▲고병일(경제·84) 50만원
- ▲김남균(원예·82) 50만원
- ▲김명군(사학·85) 50만원
- ▲김옥열(신문방송·85) 30만원
- ▲김재필(축산·82) 50만원
- ▲김제승(자원공학·72) 50만원
- ▲김종춘(무역·78) 50만원
- ▲김평호(사법·89) 50만원
- ▲김현종(정치외교·90) 50만원
- ▲김현진(미술·90) 30만원
- ▲노재형(미생물·92) 20만원
- ▲노진양(산업공학석사·93) 30만원
- ▲노형석(수학·88) 50만원
- ▲문기식(행정·79) 30만원
- ▲문병우(지역개발·86) 30만원
- ▲문 인(토목박사·96) 50만원
- ▲문재웅(기계공학·85) 50만원
- ▲박명숙(국어국문·98) 50만원
- ▲박영용(행정석사·13) 50만원

▲박용수(과학교육·75) 30만원

▲박 원(행정·85) 20만원

▲서애련(사법·92) 50만원

▲서용규(중어중문·84) 20만원

▲손해수(수학·85) 30만원

▲심재연(간호·76) 50만원

▲양주열(행정·82) 50만원

▲오병석(의학·91) 50만원

▲오수진(법학·1) 50만원

▲이병철(정치외교·87) 30만원

▲이상소(행정석사·8) 50만원

▲이상식(회계·81) 50만원

▲이연풍(경관·14기) 50만원

▲이재연(물리화학·96) 50만원

▲임현정(전산·94) 50만원

▲임현정(컴퓨터정보·94) 50만원

▲정권희(화학공학·81) 50만원

▲정순근(행관·23기) 20만원

▲정진욱(도시 및 지역개발정책·15) 50만원

▲정해정(낙농·85) 50만원

▲조봉근(정책·92) 50만원

▲최춘태(농학·81) 15만원

▲홍종희(기계공학·70) 50만원

▲황선욱(의학·66) 50만원

##### 상임이사

▲나용수(산관·1기) 20만원

▲서상우(정치외교·80) 20만원

▲이영주(약학·94) 30만원

▲최고산(21세기 최고지도자·30기) 30만원

▲최충명(정치외교·98) 30만원

##### 이 사

▲정경훈(약학·11) 20만원

▲전미희(식물생명공학·9) 20만원

#### 평생회비 (1월 1일~5월 31일)

▲박은영(사회복지협동·11) 50만원

▲하주아(생활환경복지·13) 50만원

▲마영원(화학·83졸) 50만원

#### 연회비 (1월 1일~5월 31일)

##### 간호대학

- ▲김혜영(간호·91)
- ▲남상옥(간호·68)
- ▲문정선(간호·74)
- ▲서향재(간호·67졸)
- ▲안정옥(간호·77)
- ▲이종임(간호·82)
- ▲최영재(간호·73졸)

##### 경영대학

- ▲강부암(회계·90)
- ▲김선윤(경영·83)
- ▲김영근(경영·87)
- ▲김영철(경영·75)
- ▲김윤근(회계·82)
- ▲김재인(경영·83)
- ▲김태수(경영·80)
- ▲민화식(경제·58)
- ▲박병춘(경영·80)
- ▲소홍석(무역·74)
- ▲윤명호(무역·67)
- ▲이문규(무역·87)
- ▲이승국(행정·90)
- ▲정선호(무역·77)
- ▲최성주(경제·80)
- ▲한동철(무역·75)
- ▲한성수(회계·82)

##### 공과대학

- ▲강대욱(토목공학·58)
- ▲강진해(금속공학·72)
- ▲김관현(토목공학·61)
- ▲김부용(화학공학·71)
- ▲김선식(화학공학·69)
- ▲김성귀(토목공학·79)
- ▲김영남(전기공학·70)
- ▲김영무(전기공학·61)
- ▲김용백(건축공학·68)
- ▲김용재(금속공학·70)
- ▲김인구(토목공학·80)
- ▲김종근(건축공학·72)

- ▲김진하(화학공학·69)
- ▲김현호(금속공학·68)
- ▲김형주(화학공학·80)
- ▲박동주(전기공학·61)
- ▲박순식(토목공학·83)
- ▲박종호(토목공학·77)
- ▲백부선(화학공학·55)
- ▲변영재(요업공학·68)
- ▲서금렬(공업화학·85)
- ▲서정철(전기공학·68)
- ▲손동일(건축공학·83)
- ▲염종환(기계공학·78)
- ▲오병수(기계공학·72)
- ▲오상용(화학공학·69)
- ▲오일환(전기공학·76)
- ▲윤대좌(전기공학·72)
- ▲윤재화(토목공학·58)
- ▲이병길(화학공학·58)
- ▲이은수(기계공학·81)
- ▲이재동(토목공학·71)
- ▲이한묵(토목공학·58)
- ▲이한민(토목·87)
- ▲이현균(기계공학·79)
- ▲이형섭(금속공학·76)
- ▲장상욱(전기공학·72)
- ▲장 희(화학공학·77)
- ▲정달성(전기공학·72)
- ▲정유홍(기계공학·74)
- ▲정한수(건축공학·70)
- ▲정호채(기계공학·79)
- ▲조대우(요업공학·69)
- ▲지영섭(금속·64)
- ▲차승건(토목공학·72)
- ▲천양기(건축공학·70)
- ▲최문길(전기공학·70)
- ▲최양석(화학공학·89)
- ▲최연수(금속공학·81)

**농업생명과학대학**

- ▲기갑서(농업경제·68)
- ▲김규상(임학·62)
- ▲김성근(임학·62)
- ▲박금중(농학·73)

- ▲서영권(농학·69)
- ▲심재윤(농학·71)
- ▲이덕범(임학·77)
- ▲이영승(농화학·83)
- ▲이정옥(임학·69)
- ▲임행진(임학·52)
- ▲임형기(농업경제·67)
- ▲조흥근(농학·69)
- ▲최근영(국제·07)
- ▲박인진(농학·66)
- ▲임행진(임학·52)
- ▲최안성(축산·82)

**법과대학**

- ▲강한주(공법·86)
- ▲강현섭(법학·72)
- ▲강훈열(사법·86)
- ▲김길원(법학·65)
- ▲김성흠(사법·91)
- ▲김철영(법학·57)
- ▲나현숙(공법·87)
- ▲문동길(행정·78)
- ▲박광호(행정·92)
- ▲박병철(법학·75)
- ▲배상호(법학·67)
- ▲유영성(법학·79)
- ▲윤서강(사법·86)
- ▲이두백(법학·69)
- ▲이승국(행정·90)
- ▲임성환(법학·74)
- ▲임정택(법학·63)
- ▲최준동(행정·71)
- ▲최태화(법학·58)
- ▲황의봉(법학·58)

**사범대학**

- ▲김종해(지리교육·81)
- ▲박경자(지리교육·79)
- ▲박종근(불어교육·78)
- ▲윤준서(생물교육·84)
- ▲이승오(국어교육·81)
- ▲장길수(생물교육·82)
- ▲정경모(영어교육·87)

**사회과학대학**

- ▲김석병(사회·78)
- ▲김양순(심리·87)
- ▲김형국(정치외교·72)
- ▲박하일(정치외교·54)
- ▲선국규(사회·79)
- ▲송재기(정치외교·72)
- ▲이남기(정치외교·84)
- ▲이은석(문헌정보·84)
- ▲한성수(정치외교·72)

**수의과대학**

- ▲고진구(수의·73)
- ▲고태오(수의학·80)
- ▲문무광(수의학·61)
- ▲백병선(수의학·72)
- ▲성광일(수의학·53)
- ▲안익순(수의·69)
- ▲유동현(수의·56)

**약학대학**

- ▲김영란(약학·86)

**의과대학**

- ▲김종성(의학·77)
- ▲박찬연(의학·85)
- ▲박형보(의학·55)
- ▲안영안(의학·75)
- ▲안현영(의학·76)
- ▲이기운(의학·79)
- ▲이유근(의학·61)
- ▲최정섭(의학·79)

**인문대학**

- ▲강상욱(사학·88)
- ▲강성률(철학·79)
- ▲고지문(영어영문·59)
- ▲김양현(철학·80)
- ▲김재봉(국어국문·70)
- ▲류순범(영어영문·76)
- ▲박창준(중어중문·84)
- ▲엄철주(영어영문·79)
- ▲지경래(국어국문·58)
- ▲최지희(철학·97)
- ▲한영호(철학·61)
- ▲황순영(영어영문·76)

**자연과학대학**

- ▲김애리(계산통계·82)

**치과대학**

- ▲최준규(치의학·87)

**교육대학원**

- ▲윤희숙(교육석사·04)
- ▲조명옥(여성지도자과정·1기)

**경영전문대학원**

- ▲강대일(경관·27기)
- ▲고병선(경관·29기)
- ▲김석기(경관·38기)
- ▲백영팔(경관·38기)
- ▲유병진(경영석사·90)
- ▲이학재(경최·21기)
- ▲임종혁(경영석사·34기)
- ▲정광영(경관·27기)
- ▲허상배(경관·36기)
- ▲황경태(경영석사·94)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이일순(체육·16)
- ▲채복경(간호·05)
- ▲임근천(체육·18)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문 인(토목석사·95)

**산업대학원**

- ▲김진선(산관·10기)
- ▲민창식(산업공학·15)
- ▲권오진(토목공학·12)

**정책대학원**

- ▲오승준(행정·91)
- ▲신승수(행정·2)
- ▲윤인후(행정·92)
- ▲이길선(행관·25기)
- ▲전주언(행정·92)
- ▲정현철(행정·85)
- ▲최원섭(행정·4)

**단과대학불분명**

- ▲김종민
- ▲무기명(00·00)

2025년 6월 분

임원회비 (6월 1일~6월 30일)	
<b>이사장</b>	
오형석(불어불문·83)	1,500만원
<b>상임고문</b>	
박승현(건축공학·70)	30만원
<b>고문</b>	
김안재(간호·62졸)	50만원
이정재(경최·25기)	20만원
<b>자문위원</b>	
김 영(화학공학·72)	30만원
김주현(경제·75)	30만원
임우진(법학·73)	30만원
<b>상임부회장</b>	
양부남(법학·80)	50만원
윤영주(회계·85)	300만원
<b>부이사장</b>	
강승희(농학·97)	200만원

부회장	
김보영(정치석사·25)	50만원
김성원(경영·80)	50만원
노복균(의학·91)	50만원
박매호(농학·87)	50만원
박준수(경제·83)	20만원
박현철(치의학박사·17)	50만원
오유나(영어교육·92)	50만원
이승룡(건축·78)	50만원
정 남(미술·90)	10만원

연회비 (6월 1일~6월 30일)	
<b>간호대학</b>	
김혜영(간호·91)	
<b>경영대학</b>	
강대성(무역·76)	
김완호(경제·65)	

봉필삼(회계·83)	
송천식(무역·58)	
<b>공과대학</b>	
이현성(토목공학·73)	
<b>농업개발대학원</b>	
심재록(농업개발·3)	
<b>농업생명과학대학</b>	
김을수(임학·79)	
변연학(임학·67)	
신동길(농업경제·86)	
정구선(임학·58)	
최안성(축산·82)	
<b>법과대학</b>	
김병하(법학·77)	
<b>수의학대학</b>	
문병현(수의학·73)	
<b>의과대학</b>	
손석준(의학·76)	

허인무(의학·53)	
<b>인문대학</b>	
신남영(국어국문·81)	
<b>정책대학원</b>	
김흥태(행정·5)	
한동석(행정·99)	

**<대학원 약칭 범례>**

- 경관 :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자과정
- 경최 :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정관 : 정책대학원
- 정석 :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 정최 : 정책대학원 최고정책과정
- 산관 : 산업대학원
- ※ '행정대학원'이 '정책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경영대학원'이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GLOBAL SAE-A

GLOBAL SAE-A GROUP  
쌍용건설

# Who made it?

어떻게 지었을까? 누가 지었을까?  
싱가포르의 새로운 상징이 된 세계적 랜드마크  
나는 지금, 세계인의 가슴에 새겨지는  
더 큰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세아의 가족이 된 쌍용건설이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싱가포르, 2010)

피사의 사탑보다 10배 기울어진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의 건축물.  
52도 기울어진 호텔과 길이 340m, 중형 승용차 43,000대 무게의 스카이 파크를 포함한 지상 57층 3개동 총 2,561객실 규모의 이 호텔을  
전세계의 찬사 속에서 쌍용건설이 완벽하게 단독 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쳤습니다.